

조선후기 경산현 玉川書院의 설립과 변천*

채광수**

목 차

- I. 머리말
- II. 徐思選의 경산현 入鄕과 향촌활동
- III. 옥천서원의 설립과 변천과정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조선후기 경산현을 대표한 달성서씨 문중 玉川書院에 대한 연구이다.

조선후기 문중들은 왜 서원을 필요로 했을까? 향촌사회에서 서원은 族的 결속 강화를 통한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기구로, 문중 사업을 위한 총합적 기능처였다.¹⁾ 무엇보다 서원 보유 유무에 따라 문중 간 格 차이가 발생했기 때문에 서원은 문중에 꼭 필요하였다.

경산현의 달성서씨 문중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서사선 개인의 생애와 사상, 문학세계 및 종가 전체를 개관한 논저가 있다.²⁾ 다만 旣 연구에서는

* 이 글은 삼성현문화박물관이 주최하고 대구한의대학교 문화콘텐츠센터가 주관한 제7회 삼성현 학술대회(2022.9.23)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C2A02082813).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연구교수

1) 이해준, 「한국 서원과 향촌사회」 『한국학논총』 제29집, 2007, pp.153-154.

2) 정우락, 「東臯 徐思選 詩文學의 공간 상상력과 의미 구조」 『국학연구논총』 제20집, 2017; 정병호, 「東臯 徐思選의 挽詞에 대하여」 『국학연구논총』 제20집, 2017; 홍원식,

서사선의 입향 배경과 향촌 활동, 그를 제향한 옥천서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같은 사정은 자료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옥천서원 관련 고문서가 발굴되어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연구의 장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³⁾ 비록 다른 지역에서는 흔한 일반적인 것이지만 조선시대 사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는 경산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 글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옥천서원의 주향자 서사선의 경산현 정착과 향촌 활동에 대해 살폈고, 3장에서는 고문서를 바탕으로 옥천서원 설립과 변천 과정을 탐색해 보았다. 문중서원의濫設 배경은 선행연구에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되었지만,⁴⁾ 개별 문중서원에 대해서 검토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사례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Ⅱ. 徐思選의 경산현 入鄕과 향촌활동

1579년(선조 12) 대구부 남산리에서 출생한 서사선(1579~1651)은 25세에 혼인한 이래 1650년(효종 1) 타계할 때까지 47년 동안 줄곧 경산현에서 살았다. 경산 입향 이전 서사선의 행적은 임진왜란 전·후로 축약할 수 있다. 앞 시기는 7대조 徐忱 대부터 달성서씨가 터전으로 삼은 남산리에서 종형 徐思遠(1550~1615)에게 소학을 배우며 꿈을 키운 14세까지로, 수학

『東阜 徐思選의 삶과 사상』 『국학연구논총』 제20집, 2017; 김충희, 『경북의 종가문화 68 - 경산 동고 서사선 종가』,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2.

3) 필자는 김충희, 『앞의 책』,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2에 옥천서원 고문서가 간단히 소개된 것을 보고 직접 소장처를 방문해 조사하였다.

4)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혜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기다. 뒤 시기는 임란을 맞아 팔공산·永川·거창 등지를 전전하던 중에 부모를 잃고, 서사원에게 의탁하는 혼인 전까지의 삶이다. 각종 선행연구로 이 시기는 물론 서사선의 생애 전반이 상세히 해명되어 있다. 때문에 본장에서는 서사선의 경산현 입향 배경과 향촌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려 한다.

서사선이 경산현에 세거하던 珍山陳氏와의 혼인은 서사원의 주선으로 성사되었다고 알려져 있다.⁵⁾ 그 단서는 정구와 서사원의 문인록에서 찾을 수 있다. 정구의 문인록인 『檜淵及門錄』에는 경산현 출신 3명이 수록되어 있고,⁶⁾ 서사원의 문인록에는 경산현 출신 4명이 확인된다.⁷⁾ 경산의 문인들은 금호강 물길을 이용해 대구의 仙查齋나 연경서원 등에서 개최되는 강학에 자주 참석했다. 한강학과의 수장이자 선사재의 주인 서사원은 이들과 교유했고, 자연스레 경산지역의 사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문인 중 경산현에서 내왕하던 진산진씨의 일족인 陳暹과 陳曄 형제가 兩門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마 서사원은 여러 조건을 고려한 끝에 진산진씨를 적합한 혼처로 판단하고, 진씨 형제를 매개로 종제의 혼사를 추진했던 것 같다. 서사선은 아버지와의 같은 종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경산현을 妻鄉으로 두게 되었다.

서사선의 처가 경산현의 진산진씨는 세종대 안음현감과 예조참의를 지낸 陳夏[1419~1450]가 충청도 진산에서 이거하면서 시작된다. 입향 경위를 알려주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지만 처·외향 등과 같은 모종의 연고가 있었던 듯하다. 장남 陳自藩은 1427년(세종 9)에 문과에 급제해 교리·옥

5) 김충희, 『앞의 책』,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2, p.25.

6) 김학수, 「조선후기 綱岡綱瀾의 등장과 전개 -門人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 제40집』, 2010, p.124. 정구의 경산문인 : 陳暹, 韓景祚 외.

7) 서사원의 경산문인 : 魚雲翰, 蔣以愿, 陳曄, 韓景祺. 강민구, 「낙재의 구국 항쟁과 강학 활동」 『동방한문학회』34집, 2008, pp.187-189, 『樂齋門人錄』에서 발췌.

과현감을 지냈고,⁸⁾ 손자 陳碩山은 생원에 입격했다. 증손자 判官 陳嘉猷와 현손 陳璿이 출사를 이어갔다. 判官 진가유는 서사선의 처 5대조이며, 司諫 진관은 처 종고조부에 해당한다. 방목에 양자의 거주지가 함경도 安邊인 점을 미루어 그 지역에서도 잠시 살았던 것 같다.⁹⁾ 서사선의 처 직계 4대조를 살펴보면 이렇다 할 환력은 없다. 다만 진관의 손자들 즉 서사선 처부의 재종숙 진섬 형제와 陳暉의 임란 의병 활동이 이 가문의 특기할 만한 대목이다.

1592년(선조 25) 임란이 발생하자 진섬은 동생과 종제를 이끌고 고을 내 朴應星, 崔應淡[崔大期], 鄭變咸·變護·鄭變文 등과 함께 창의했다. 시점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보다 한 발 빠른 것이었다. 이 중 정변함·변호 형제는 진섬의 外姪이다. 진섬은 望月山¹⁰⁾을 굳건하게 지켜 왜군들의 경산현 침입을 차단하는 데 공을 세웠다. 이어서는 경산 의병장 최응담과 영천의 권응수 부대에 종군했다. 그는 영천성 수복을 앞두고 적정을 정탐하다 왜군의 공격에 순절하고 말았다. 스승 정구는 슬퍼하며 문인들에게 진섬의 시신을 棺槨에 갖추어 고향에 返葬하도록 당부했다.¹¹⁾ 진엽과 진현은 정유재란 때 객재우를 도와 화왕산성 수호에 앞장섰다.¹²⁾ 당대 영남을 대표하던 관료학자 정경세는 “경산은 아주 작은 고을이지만, 가장 먼저 창의하였다”라는 말로 진섬을 비롯해 경산사족들의 적극적인 의병 활동을 好評했다.

서사선은 1603년(선조 36) 혼인한 이듬해 당시 男歸女家婚 풍습에 따라

8) 『國朝文科榜目』과 『실록』에는 그의 이름이 ‘陳子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기술한 인물들의 묘소가 경산시 계양동과 남천면 일원에 조성되어 있어 경산의 세거지를 둔 것은 명확하다.

10) 망월산은 현재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있는 산이다.

11) 정구, 『寒岡年譜』제1권.

12) 『倡義錄』, 『龍蛇世降錄』.

경산현에 이거해 정착한다. 처부 陳文孝가 외동딸만 둔 까닭에 처가의 재산을 고스란히 상속받았다.¹³⁾ 같은 해 30여 칸의 東臯精舍를 신축하였던 것을 보아 상속 규모가 상당했던 것 같다. 더구나 서문효의 친형 陳舜孝 역시 無後해 그 재산 일부가 조카에게 상속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경제적 기반은 후손들이 경산현에 세거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한편 서사선의 경산현 정착은 지역 문풍을 진작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강학, 교유, 문인양성, 公文 찬술 등에 나타난 그의 자취를 따라가 보자.¹⁴⁾ 혼인 후에도 대구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한 그는 경산에서 1608년(선조 41) 자인향교에서 첫 강학을 실시하였다. 이때 그가 경전을 강론한 뒤 학생들에게 勸勉의 시 한수를 지어 준 것이 전한다.

경전 강론 끝난 뒤 밤이 깊었건만	講罷遺經到夜深
다시 등불 당겨 그대와 공리하네	更親燈火共君尋
그 속의 천만 말씀 다른 뜻 없으니	千言萬語無他意
성현이 전한 것은 오직 ‘공경’ 일세	賢聖相傳一字欽 ¹⁵⁾

강론이 끝난 후에도 깊은 밤까지 金應鳴(1593-1647)과 토론이 이어졌고, 경전의 많은 말속에서 유가 수양론의 핵심인 敬을 찾는 모습을 보인다.¹⁶⁾

연보를 보면 경산현의 대표적인 교육 시설인 고산서재에서 51세 때인 1629년(인조 7), 62세 때인 1640년(인조 18), 72세 때인 1650년(효종 1) 3차례 강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629년 이전 서사선은 이미 생원시 입

13) 이 가계는 달성서씨 외손봉사로 이어진다.

14) 이 부분은 김충희, 『앞의 책』,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2를 참고하였다.

15) 서사선(박대현 역), 『(국역) 동고집』 권5, 『연보』 30세 條, 옥천서당, 2000.

16) 정우락, 『앞의 논문』 『국학연구논총』 20집, 2017, p.111.

격 후 성균관 수학, 정구의 禮說 필사, 郭再謙(1547~1615)의 행록을 지었다. 또한 대구지역 각종 강학 참여 및 장현광 등 名儒와의 종유를 통해 상당 수준의 학문적 소양을 갖춘 학자로 성장한 상태였다. 더구나 전년도에 안흥사에서 『심경』 강론을 향촌 사회에 선보인 바 있다. 고산서재에서의 첫 강학은 대구부사 李穡의 방문을 맞아 펼쳐진 강학이었다. 종일토록 진행된 강론은 사마시 동방인 양자의 친교 때문에 마련될 수 있었다. 두 번째 강학 때에는 고을의 많은 사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현령 南錫의 두 아들 南得朋·得箕 형제와 함께 『朱書』, 『心經』을 강론했다. 생전의 마지막 세 번째 강학 때에는 옷골마을 입향조 崔東集(1586~1664)과 고산서재에 머물던 승정처사 朴玢衢(1587~1658) 등의 동문들과 경산현령 沈樞이 동석했다. 서사선이 박공구에게 보낸 아래의 시는 당시의 정경이 잘 묘사되어 있다.

고산의 형승 영남의 제일인데	孤山形勝南州冠
작은 집 중수함이 어느 때였던가	一畝重修問幾時
오늘 고명한 분이 스승의 자리 앉았으니	今日高明懸絳帳
이곳의 벗들이 올바른 기준을 얻게 되었네	此間朋友得靈龜 ¹⁷⁾ (중략)

그래서 이황의 10대손 경산현령 李彙載(1795~1875)는 고산서원 『東西齋重修記』에서 “徐日復(1781~1854) 원장의 6대조인 동고공은 한강 정구의 문하로서 이름이 서원 기록에 남은 것이 여러 번이다. 그 뒤를 이어 여러 차례 중수하여 한결같이 서원을 지킨 것이 그 가문[달성서씨]의 사람이니 어찌 선배의 교훈이 여태껏 남아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며 서사선과 그 후손들의 노력을 闡揚했던 것이다.¹⁸⁾ 달성서씨 동고문중의 고산서원에

17) 서사선(박대현 역), 『앞의 책』 권2, 「박자룡이 고산서재에 와서 지내기에 시 한 수를 지어 보냄」, 옥천서당, 2000.

대한 관심이 가품으로 착실히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⁹⁾

서사선은 경산현에 있던 동학 중 비슷한 연배였던 韓景祺·景祚 형제와 담장 하나를 두고 40년간 情誼를 나누었다. 서사선은 후에 둘의 挽詞를 지어 “술이 익으면 그대가 와서 취하고, 꽃이 피면 내가 가서 감상하였네”. “하루를 보지 못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맞이했고, 이틀을 보지 못하면 공이 반드시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라며²⁰⁾ 생전의 추억을 되새기고 추모를 표했다.

서울에 살았던 청주한씨는 연산군 대 성주로 내려왔다가 임란을 피해 경산현에 들어온 가문이다. 경산현에 정착한 한씨형제는 부친 直長 韓珣의 명으로 1605년(선조 38) 정구에게 執質의 예를 갖춰 입문했다.²¹⁾ 이후 한강문인들과의 교류와 서사원·손처눌 등이 개설한 강회 참여를 통해 학적 연망과 학문 세계를 넓혀갔다. 그 속에 서사선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다. 손처눌이 永慕堂에서 通講한 내용인 『永慕堂通講諸子錄』에 한경조를 두고 “타고난 자질이 영민하고 기품과 모습이 端重하였다”라고 評해 놓았다.

또한 이들은 선사재·연경서원·永慕堂·고산서재 강회 등에서 동문수학 또는 강회를 주관했다. 아래 <표.1>은 1605년(선조 38) 11월~1613년(광해군 5) 10월까지 30회에 걸쳐 대구지역 유림들이 시행한 강학 자료인 『通講錄』²²⁾ 중 경산출신 3명의 기록을 발췌한 것이다. 3명이 통강한 書名, 篇名, 詩賦, 평가 등의 사항이 쓰여져 있다.

18) 이회재, 『雲山文集』권7, 「記-東西齋重修記」.

19) 경산현령 이회재는 1868년(고종 8) 조정에서 내린 서원 철폐령 때 철회를 요청하는 「孤山書院 毀撤時狀」을 작성한다.

20) 서사선(박대현 역), 『앞의 책』권3, 「挽韓士綵 景祚」·「挽韓子綵景祺」.

21) 한경조(김연뢰 역), 『(국역) 柳溪集』권2, 「遺事」.

22) 구분옥, 『大邱儒賢通講錄』, 도서출판 동방, 2014, pp.51-53 발췌.

〈표.1〉『通講錄』에 등재 된 경산출신 인물 평가항목

성명	1605년 11월	1606년 정월	1606년 2월	1606년 3월	1606년 4월
서사선	孟梁惠至藤文 通 小學序至立教 粗 夙夜箴 略	孟離屢上下 略 敬齋箴 略	賦孝悌爲人之本 二中 詩方塘一鑑開 三下	孟萬章 純略 賦勸書劇嗜炙 三下 詩 三中 東西銘 粗	孟告子 純略 六君子贊 通 閑人有官守詩 三下
한경기	中庸 粗 小學初 粗 夙夜箴 略	大學 粗 孟初 略 敬齋箴 通	孟子公孫 略	孟藤相 純通 東西銘 純粗	孟離屢上下 通 六君子贊 略
한경조	論陽貨至終 通 小學 粗 夙夜箴 略	中庸止十六章 粗 敬齋箴 略	中庸自十七至終 粗 小學題辭 粗	孟盡心上 粗 東西銘 粗	孟盡心下 純略 六君子贊 略

이들의 동류의식은 1615년(광해군 7) 스승 정구의 동래온천 노정, 곧 ‘蓬山浴行’ 귀로인 하양·경산에서 함께 영접하는 모습으로도 나타났다.²³⁾ 이후 서사선은 한경조의 차남 韓鑠을 문하생으로 허락하며 사제지간으로 발전한다.

동고정사에 찾아와 가르침을 받은 또 다른 문하생은 鄭惟新과 呂遇文을 꼽을 수 있다.²⁴⁾ 특히 예닐곱살에 급문해 공부에 매진한 정유신²⁵⁾에 대해 “외우지 못하는 글이 없고, 짓지 못하는 글이 없다”며 특출한 재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뛰어난 학문실력과 향시에 입격한 전도유망 했던 제자가 먼저 사망하자 장편의 만사를 지어 애뉠한 마음을 표했다. 서사선이 지은 60편의 만사 중 제일 심혈을 기울인 작품이다. 그만큼 정유신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음을 의미한다.²⁶⁾

서사선이 경산 유림을 대표해 지은 1633년(인조 11) ‘향교이건 상소문,

23) 이운우(이세동 역), 『(국역) 봉산육행록 한강선생 동래온천에 가다』, 성주문화원, 2016, pp.82-83.

24) 서사선(박대현 역), 『앞의 책』권5, 『연보』, 옥천서당, 2000.

25) 정유신은 서사선 장모 초계정씨의 족질이다.

26) 서사선(박대현 역), 『앞의 책』권3, 『挽鄭君德舊惟新』, 옥천서당, 2000.

移安·還安고유문 및 6차례의 祈雨文'은 당대 향촌사회에서 그가 가진 입지를 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서사선의 위상은 향후 이 가문이 지역사회에 안착하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이와 함께 자손들까지 번창²⁷⁾하면서 향권을 주도하는 유력 가문으로 성장한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경산향교 校任의 성씨별 통계'에서 이 같은 사정을 확인할 수 있다.²⁸⁾

〈표.2〉 경산향교 교임 성씨별 통계

성씨	徐	鄭	韓	蔣	李	趙	孫	金	柳	羅	郭	承	殷	白	朴	呂	權	계
교임	16	7	10	5	4	2	2	2	1	1	1	1	1	1	1	1	1	57

Ⅲ. 옥천서원의 설립과 변천과정

옥천서원 소장 고문서로는 『東臯精舍田畝·奴婢秩(1758)』, 『玉川祠奉安時日記(1786)』, 『玉川祠成造扶助記(1786)』, 『院屬案(1854)』, 『玉川祠陞號時各門中添助記(1854)』, 『通文(1854)』 등이 世傳한다. 1758년(영조 34)~1854년(철종 5) 작성이 되었으며, 옥천서원의 설립과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운영 실태 또한 파악할 수 있는 유의미한 사료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옥천서원의 모체인 동고정사의 존재와 사우로의 전환, 그리고 서원 승격의 3단계 여정을 담고 있다. 아울러 『동고선생문집』 내에는 옥천서원 관련 상량문·축문·記文 등이 수록되어 있어 다소 참조가 된다. 다만 『임원록』, 『원생안』, 『尋院錄』 등의 명부류가 전하지 않아 인적구성을 알 수 없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27) 아들이 없던 서사선은 두 번이나 양자를 들였는데 두 번째 卄厚가 4명의 아들을 두면서 족세가 크게 번창하게 되는 것이다.

28) 이수환, 「조선후기의 경산」 『경산의 역사』, 경산문화원, 2015, p.348.

18세기 이후 등장하는 문중서원의 경우 당초부터 서원으로 설립된 경우는 거의 없다. 숙종 후반부터 서원 신설 금지령이 강화되자 서당·影堂·精舍·書舍 등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陞院시키는 방식이 보편적으로 나타났다. 옥천서원의 모체는 앞서 언급한 東臯精舍이다. 동아시아 서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주희는 동일한 강학공간이라는 점에서 서원과 정사를 혼용하였다. 엄밀히 따지면 주희는 서원은 여러 원생을 두고 규칙이 있는 곳, 반면 정사는 학식이 높으면서 자율적인 운영에 초점을 둔 곳으로 여겼다.²⁹⁾ 소수서원이 설립되기 1년 전 1542년(중종 37) 훈구계 魚得江이 조정에서 부진한 지방교육 진흥을 위한 방편으로 중국의 서원과 精舍제도를 소개한 것도 이러한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³⁰⁾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선 후기 精舍는 독서와 藏書의 기능을 지닌 書齋의 개념이 강화되었다.

서사선은 혼인 후 경산현 城의 남문 밖 상방리에 동고정사를 지었다. 그는 터를 잡은 뒤 ‘산은 나무하고 물은 고기 잡을 만하네’라는 감회를 읊었다.³¹⁾ 아마 집터 뒤 東山³²⁾과 앞에 흐르는 南川을 두고 이야기한 것 같다. 당시 그의 나이 26세였다.

草堂이 상량되자 東臯라는 편액을 걸었고, 이를 自號로 삼았다. 동고란 동산 아래의 집이라는 뜻도 있지만, 도연명처럼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이기도 하였다.³³⁾ 그가 어릴 적부터 수학하며 遊食했던

29) 范慈嫻, 「白鹿洞書院의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 -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학대학원 석사논문』, 2015, pp.30-31.

30) 『중종실록』 권98, 1542년(중종 37) 7월 27일.

31) 서사선(박대현 역), 『(국역)東臯集』 권1, 「새 터를 잡다」.

32) 현재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長鼓山을 말한다. 지역민들은 이곳을 東山 언덕으로 불렀다. 참고로 고려시대 문신으로 초계정씨 경산 입향조인 鄭珥의 사당명도 東山祠였다(남천면 협석리에는 1938년 복원된 동산서당이 있다).

33) 도연명은 「歸去來辭」에서 “東臯에 올라 휘파람을 불고, 맑은 물가에 다다라 시를

서사원의 강학처 仙查精舍에서의 경험이 精舍 건립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동고정사는 서사선 개인의 독서처였지만, 경산을 찾는 師友 및 지방관들과 從遊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사우로는 손처눌 · 鄭四勿 · 四震 · 박공구 · 沈大學 · 趙光壁,³⁴⁾ 지방관으로 대구부사 趙國賓 · 李穡, 하양현감 李宜潛, 자인현감 任善伯 등이 발걸음 했다. 이들 몇몇은 방문을 기념하는 詩를 남겼는데『東臯集』에 일부가 실려 있다. 동고정사에는 항상 신발이 가득했다고 할 만큼 내방객이 잦았다. 아래는 서사선이 동고정사의 풍경을 직접 노래한 시이다.

궁벽한 마을의 세 칸 초가집	窮巷三間屋
찌는 듯한 유월의 염천이라네.	炎蒸六月天
풀은 무성한데 문은 홀로 닫혔고,	草深門獨掩
손님 끊어지고 책상만 덩그렇게 놓여있네.	賓斷榻空懸
나무에 부는 바람 은근히 기쁘고,	稍喜風來樹
上弦이 된 달은 자못 소생했구나.	頗蘇月上弦
구만리를 날기에는 때가 이미 늦어,	搏扶時已晚
북창에 누운 채 낮잠을 청한다네.	頽臥北窓眠 ³⁵⁾

그는 만년까지 이곳에서 거처했다. 1651년(효종 2) 서사선 死後에도 동고정사는 존속하며 문중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구심처 역할을 했을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이름만 精舍였지 서원과 다름 없었을 개연성이 높다. 영남지역에서 精舍가 서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³⁶⁾

깃노래[登東臯以舒嘯, 臨清流而賦詩].”라고 한 바 있다. 정우락, 『앞의 논문』, 2017, pp.118-119.

34) 조광벽은 진섬 · 진엽 형제와는 처남 매부지간이다.

35) 서사선(박대현 역), 『앞의 책』권2, 「6월에 초당에 적다」.

그러나 1757년(영조 33) 12월 21일 화재로 동고정사가 소실된다. 이후 종가의 새 터전을 중방동에 잡을 때,³⁷⁾ 동고정사 역시 함께 복설한 것 같다.³⁸⁾ 이때 동고정사라 칭했는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이후 정황을 고려할 때 1786년(정조 10) 玉川祠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건축물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이어 동고정사가 가지고 있던 경제 상황을 문서로 정리하였으니, 1758년(영조 34)에 생성된 노비·전답안이 그것이다. 물론 1점에 불과하나 향후 서원 설립에 중요한 기초 자산이 되는 까닭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전답 소유 규모는 아래 <표.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3> 동고정사의 전답 소유 현황

지역	北吐員	金山方員	卜任項員	豆堂員	堤員	正林員	합계
규모	田10두락지 畓7두락지	田46두락지 畓10두락지	田3두락지	畓2두락지	畓30두락지	田16두락지	田 : 137두락지 畓 : 101두락지 기타 : 7두락지
지역	畓土員	玉谷員	史丁方員	干泉員	東村員	甲堤員	
규모	畓8두락지 7두락지	畓22두락지	畓2두락지	畓14두락지	田62두락지	畓6두락지	

동고정사의 전답은 12개 지역에 분포해 있으며, 田 137두락지, 畓 101두락지, 기타 7두락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밭이 논보다 36두락지가 많다. 옆 고을의 하양향교가 233두락지의 전답을 보유한 점과 비교해 보아도 적지 않은 규모를 갖추고 있었다.³⁹⁾ 물론 수세량에서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 감

36) 함창 陶溪[享 柳砲 외]·雅谷精舍[享 朴訥 외], 안동 公山[享 南太白 외]·伊溪精舍[享 權宇 외], 예안 寒泉精舍[享 金澤龍], 榮川 龜山精舍[享 金淡 외], 비안 白川精舍[享 張輔之 외], 영해 陶溪精舍[享 朴璿 외].

37) 『東臯精舍田畓·奴婢秩(1758)』

38) 종가는 현재 경산시 중방동 508번지에, 동고정사는 경산시청 부근에 재건했다. 김충희, 『앞의 책』, 2022, pp.110-123.

39) 채광수, 「19세기 경상도 하양현 育英齋 설립과 운영 양상」, 『영남학』 제76호, 2021, p.344.

안해야 하겠지만, 당시 달성서씨 동고문중의 경제력을 짐작할 만한 대목이다. 이들의 전답 위치는 모두 알 수는 없으나, 『慶山縣誌』에 正林·玉谷·東村·甲堤⁴⁰⁾ 등의 지명이 확인되는 것을 보면 경산 또는 인근에 분포했던 것 같다. 공적 기구가 아닌 만큼 문중 자체에서 출자·매득·기부 등의 형식으로 마련했을 것이다.

전답과 서원 경제의 2대 재산인 노비 확보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터이다. 동고정사가 소유한 노비로는 노 12口, 비 9口 및 도망노비 5口가 「奴婢秩」에 등재되어 있다. 이들의 거주지는 固城·밀양·자인 각 3구, 永川 2구, 대구 1구로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는 서원 근처에 살았기에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것 같다. 전자는 주로 身貢을 납부하는 納貢노비일 것이며, 후자는 서원에 각종 노동력을 제공하는 仰役노비로 보인다. 전답 규모에 비하면 노비의 숫자가 상당히 적다. 이는 18세기 중·후반 노비 도망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재산으로서 노비의 가치가 급락하는 현상에 기인한다.⁴¹⁾

조선후기 경산현은 다른 고을에 비해 서원 설립이 매우 늦었다. 일차적으로 서원의 설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지사족의 형성과 활동이 미약했다. 보다 근본적 원인은 경산현에는 서원에 제향할 만한 儒賢의 부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경산현에 최초로 설립된 서원인 孤山書院에 本邑 출신이 아닌 이황과 정경세를 모신 까닭이 여기에 있다.⁴²⁾ 이황은 고산서재의

40) ·正林里 : 관문과 8리 거리이다. ·玉谷湫 : 현의 남쪽 5리에 있다. ·干泉堤 : 현의 서쪽 5리에 있다. 사방둘레는 610척이고, 수심은 5척 3촌이다. ·甲堤里 : 관문과 8리 거리이다. ·正林里 : 관문과 8리 거리이다.

41)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p.169.

42) 고산서원은 16세기 후반 경산현 城山 기슭에 세워진 서재에서 비롯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난 때 소실이 되었다가 1605년(선조 38) 재건했고, 1694년(숙종 20) 지역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황과 정경세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위패를 모신 뒤 서원으로 승격시켰다.

편역 命名 및 親書를 했다는 것을,⁴³⁾ 정경세는 대구부사 때 강학한 연고를 由緒로 삼았다. 경산현에는 두 유현의 후손과 문인이 없기에 一鄉 공동의 노력으로 서원을 세웠으며 당색을 따지지 않고 여러 인사가 참여하여 운영했던 것 같다. 1690년(숙종 16) 立廟를 주관한 韓弘翊은 송시열의 제자인 반면, 1734년(영조 10)·1776년(영조 52) 중수 때는 남인계열의 徐道璣·光濂이 책임을 맡은 것에서 그러한 양상이 잘 드러난다.⁴⁴⁾ 고산서원이 지역의 대표 향촌기구라는 점도 전제해야겠지만, 한편 이러한 사실은 경산현처럼 小邑에는 색목의 차이가 향촌 활동에 지장이 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경산향교 역시 고산서원의 운영 및 참여 세력과 인적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지역의 특징적인 성격의 하나라 지적해 둘 만하다.

17세기 이후 동성촌이 형성되고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부계친족 중심의 결속이 강화되어갔고, 이에 향촌사회에서는 다양한 문중활동이 본격화된다.⁴⁵⁾ 그러한 문중활동의 정점에 바로 서원 설립이 자리하고 있었다. “復戶, 旌閭, 贈職도 미흡하다. 사우를 세워 俎豆하는 것이 百世에 여러 선비들에게 우러러짐이다.”⁴⁶⁾라는 말이 이러한 인식을 잘 대변한다. 예컨대 문중에서 직영하는 서원이 아니더라도 선조의 제향처에 빈번한 尋院을 통해 결속과 위세를 과시한 행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는 현상이다.⁴⁷⁾

그러나 경산의 諸 문중은 서원을 세우고 싶어도 제향할 인물이 부족했다. 이와 달리 달성서씨는 읍지에 수록된 鄉賢[서사선]도 있거니와 사우로 전환할 수 있는 건물이 있었다. 일반 문중에서는 제향자가 있다 하더라도

43) 이황이 고산서재에 관여한 부분은 18세기 이후 읍지류와 고산서원의 記文 등에만 기록되어 있을 뿐 정작 『퇴계집』에는 보이지 않는다.

44) 李彙載, 『앞의 책』, 『記 - 東西齋重修記』.

45) 이해준, 『앞의 책』, 2008, p.23.

46) 김연이, 『華山禮輯』, 『建祠通章』; 윤희면, 『앞의 책』, 2004, p.127, 재인용.

47) 한중수, 「18~19세기 영광정씨(靈光丁氏) 문중활동 연구: 무성서원 『심원록(尋院錄)』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5권 1호, 2022.

건축비를 감당할 재력이 동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서원 설립은 불가능하다. 당시 경산현에는 문중 차원에서 설립된 서원이 없는 상황이었다. ‘정사는 후손의 받들이고, 사람의 尊奉이 되기 위해서는 서원이어야 한다’⁴⁸⁾는 언급에서 짐작할 수 있듯 서원은 곧 향촌 내 자신들의 권위와 우월성을 보여주는 데 부족함이 없는 상징물이었다. 이러한 점은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 이후 사환의 어려움 속에 서원을 매개로 향권을 주도해 간 영남지역이 보다 두드러졌다. 영남에 서원이 가장 많은 수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근래에 영남의 인사들이 걸핏하면 祠廟를 사사로이 세우고 문집을 간행하는데, 이것은 모두 고향의 선배들로 모두 세상에 널리 알려진 명사는 아니다. 그 계획이 사대부의 명성을 잃지 않으려는 데서 나왔으니, 家勢가 한미하고 이미 조정에 벼슬할 수 없으면 진실로 門族을 보존하고, 향리를 호령하며 編戶와 구별되는 것조차 어렵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⁴⁹⁾

그래서 19세기 초·중반 개령현감·의성현령·상주목사 등을 지냈고, 당대 문장가로 정평이 높았던 洪翰周(1798~1864)가 이 시기 영남지역의 서원 濫設을 이렇게 진단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서사선 위패의 親盡 문제가 대두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볼 수 있다. 친진이란 家廟에는 4대까지만 奉祀하고, 5대가 넘는 위패는 埋安해야 함을 말한다. 서사선은 不祧廟 대상자가 아니므로 매안을 하거나 立祠해 향사를 잇는 방법 외에는 현실적 대안이 없었다. 실제로 18세기 문중서원 남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이것이었다.⁵⁰⁾ 1786년(정조 10) 작성된 『玉川祠奉安時日記』 12월 27일자 향중에서 발송된 통

48) 이수환, 『寧海 仁山書院의 設立과 毀撤』 『대구사학』 제63집, 2001, p.86.

49) 홍한주(김운조 외 역), 『19세기 건문지식의 축적과 지식의 탄생 : 智水拈筆』, 소명출판, 2013, p.195.

50) 윤희면, 『앞의 책』, 2004, pp.125-127.

문에 ‘祧遷을 할 경우 별도의 사당에 봉안해야 합니다’라는 구절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⁵¹⁾ 이 같은 이유에서 精舍를 사당으로 전환해 위패를 모시기로 결정한 것이다. 위패를 봉안하는 과정은 일기 형식으로 간단히 정리가 되어있다.⁵²⁾ 일기는 1786년 12월 25일부터 다음해 1월 1일까지 7일간의 비교적 짧은 기록물로, 이를 살펴보면 위패 봉안 논의는 發議 ⇨ 준비·分定 ⇨ 봉안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봉안을 추진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을 짚고 넘어가자. 조선후기 조정의 對 서원 정책은 1694년(숙종 20) 박세채의 서원폐단 지적 이래 1713년(숙종 39) 서원의 私建을 금지한 ‘癸巳受教, 1741년(영조 17) 院祠 蠲減 등 정비와 통제 강화로 이어졌다. 그러다가 정조 연간 개혁사상의 진보적 흐름과 전통적인 양반 체제를 유지하려는 보수적인 방향이 병존하자, 서원 금령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다만 계사수교 하명 후 서원 신설은 불법이기에 향촌에서는 이를 기회로 사우·서당·영당·世德祠·鄉賢祠·精舍 등을 신설하거나 기존 앞의 시설을 陞院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다음의 기사는 그런 정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예조판서 兪彦鎬가 아뢰기를, “영남에서는 世德祠니 鄉賢祠니 일컬으면서 追享하는데, 새로 설치하는 것은 폐단이 있으니 틀어막는 것이 어떨지요?”라고 하였다. 임금이 한참동안 망설이다 말씀하시길, “지난 가을에 몇 군데 허락해 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분란의 단서가 있구나. **올해는 따지지 말고 내년 부터 다시 엄중히 금하도록 할 일이다.**”고 하셨다.⁵³⁾

위 인용문에서 정조가 말한 올해 1786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786년

51) 『玉川祠奉安時日記』 - 12월 27일.

52) 이하 서술은 『玉川祠奉安時日記』에 의거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

53) 『玉川祠奉安時日記』, 筵說.

에는 院祠를 통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만약 院祠를 세우고자 한다면 이때가 적기인 셈이다. 때마침 그해 12월 25일 서사선의 5대손 徐光漸이 하양의 韓錫謙에게 이 소식을 접하고, 이튿날 삼중제 光涑을 永川의 滄洲書院⁵⁴⁾에 급히 보내 앞의 筵說을 등사해 오게 했다.

다음날 대구에서는 崔興仁·禹命宅·蔡時澤 명의로 서사선의 봉안을 發議하는 통문이 답지했다. 전날에도 하양에서 통문이 온 바 있다. 비록 문중원사라 하더라도 鄉論을 모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은 당시 일종의 관례였다. 27일 이 사실을 향내에 發通한 뒤 승려를 불러 묘우의 단청 작업을 시작했다. 또 봉안례 때 사용할 봉안문과 常香축문은 永川의 曹采臣⁵⁵⁾에게 부촉했다. 조채신은 향시에 장원을 했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영천 採藥山에 雲深亭을 지어 학업 연마와 후학 양성에 힘쓴 학자였다. 특히 그는 주역에 조예가 깊었고, 임란 때 밀양박씨 가문의 창의를 기록한 『忠孝錄』도 저술한 名儒로 禮式문자를 청하기에는 매우 적절한 인사였다. 조채신은 상향축문에서 서사선의 삶과 봉안 의의를 잘 요약하였다.

학문은 가정에서 전해 받았고,
도덕은 연원을 이었네.
아 몇백 년이 지나도록,
길이 본받고 삼가 존경하네.”⁵⁶⁾

學術家庭
道紹淵源
於百斯年
永式欽尊

54) 경북 영천시 금호읍 삼호리에 있는 창녕조씨 문중서원[享 曹尙治(길재문인, 집현전 부제학), 曹漢輔(진사), 曹漢英(김장생 문인, 右尹), 曹善長]으로 대원군 때 훼손된 후 서당으로 복설했다.

55) 조채신(1717~1791) : 본관 창녕. 字 亮甫. 號 一庵. 1792년(정조 16) 관찰사의 추천으로 寢郎에 제수되었으며, 2년 뒤 어사의 추천으로 兪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心易統會』를 저술했고, 문집 『一庵集』이 전한다.

56) 서사선(박대현 역), 『앞의 책』 권5, 「常香祝文」.

이어 28일에는 造板과 神門 공사를 시작했고, 집례에 蔣熙稷을 선임해 봉안례를 총괄토록 했다. 눈이 약간 내리는 다음날 아침부터 고을 선비들이 당도하는 가운데 卯時에 告由祭를 지낸 다음 위패를 강당의 西上房⁵⁷⁾으로 옮겼다. 이때 고산서원 원장 鄭達權도 동석했다. 한편 鄉儒 李仁復·鄭基煥 등은 본손 徐光濬·광숙과 敎堂에서 의논해 봉안일자를 同月 30일로 결정하고 이것을 다시 향중과 대구 校院에 통고했다. 때를 맞추어 향교에서는 집례 장희직을 비롯해 造板유사 趙和鎭, 曹司 玄光履, 日記有司⁵⁸⁾ 등 봉안집사의 분정이 이루어졌다. 향교에서 분정을 실시한 배경은 향교가 향촌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구였기 때문이다. 18세기 이후 향교는 新鄕들이 장악하는 사례가 많지만, 상대적으로 사족세가 취약했던 경산현에서는 향론의 형성과 사족의 특권을 보장해 주는 중심지가 향교일 수밖에 없었다. 분정기관은 동고정사 강당 벽에 게시해 두었다.

한편 향교 도유사와 고산서원 원장은 신설되는 사우의 山長과 유사를 望定했다. 초기서원에서는 산장과 원장 직책을 혼용했으나 차츰 원장은 서원에서, 산장은 사우와 영당 등에 구별해 사용했으므로 후자로 칭한 것이다. 양자는 산장에 장희직을, 2명의 유사에는 鄭復駿과 서광숙을 각각 望定했다. 임원에 본손 1명만 유사로 둔 연유는 公議에 의해 설립된 사우가 특정 가문의 사유화 혐의를 피하기 위함이다. 연이어 봉안례 때 중책인 헌관·집례·대축를 비롯 諸 집사를 선출해 소임을 담당토록 했다.

○아헌관 鄭道權, 중헌관 楊龜命

○집례 郭鎭協, 大祝 郭柱邦, 제관유생 徐寬修, 제물유사 韓命性

○贊唱 徐光濬, 謁者 鄭時範, 贊引 蔣佑稷·孫尙曄, 司罇 孫敏錫, 奉香 鄭復駿, 奉爐 徐致淳, 奉爵 蔡興浩, 奠爵 李學東, 滌器 徐光澌

57) 서상방 : 남쪽으로 낸 大廳에 안방을 오른편에 꾸민 집을 말한다.

58) 일기유사는 李學東과 鄭翊漢이다.

○諸生 현광리, 張時濤, 張復燮, 韓錫謙

이중 8명을 빼면 모두 관내 인사로 구성되었으며, 초헌관은 산장이 맡았을 것이다. 초계 정·청주 한·아산 장씨 등 지역의 유력한 사족 일원들로 분정하였다. 일기에는 없으나 諸 집사들은 부정이 타지 않게 齋戒와 예행 연습도 병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고산서원의 홀기판을 빌려와 등사해 봉안례 때 준용하고자 했다. 造板과 神門도 완성되는 등 만반의 행사 준비를 마쳤다.

가랑비가 내리는 봉안일에 새로 단청한 묘우에 먼저 題板을 모신 다음 축문과 제물을 올렸다. 헌관은 집사들을 이끌고 제물을 검수한 뒤 정오에 봉안례를 거행하면서 본 행사는 일단락되었다. 달성서씨 동고파가 공식적으로 祠宇인 옥천사를 보유한 문중이 되는 순간이었다. 玉川이라 命名하는 사우 앞에 흐르는 南川에서 따온 것이다. 서사선이 쫀한지 136년 만의 일이다.

도유와 향유는 봉안례가 끝나자 음복과 奉審의 예를 행하고 귀가했다. 일기유사 이학동은 행사 전반의 기록인 일기와 참석자 명부인 時到記를 유사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반면 초대 산장과 유사는 다음날이 새해인 관계로 焚香을 위해 사우에 하루 더 머물렀다.

한편 사우로 전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1792년(정조 16) 강당이 신축된다. 서원으로 승격을 염두에 둔 조처라 생각한다. 서원에서 강당은 필수적인 건축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당을 향교의 강당 규모로 짓는 것으로 결정하고, 건축비 마련을 위해 향중에 도움을 청했다. 부조금을 보내온 곳은 향교·고산서원과 9개의 문중 및 49명의 개인으로, 총 120냥 5전의 부조금 수합이 이루어졌다. 초계정씨 문중과 別監 張昌義·馬道洙라는 자가 각기 10냥씩 개별 최다 부조를 해 주었다.⁵⁹⁾

경산향교에는 17세기 후반 지역의 주요 사족 명부로 볼 수 있는『儒案』

2종이 전한다.⁶⁰⁾ 여기서 액내교생의 성씨를 추출하면 1680년(숙종 6)에는 韓 3명, 권 2명, 박·서·承·이·鄭·趙 각 1명이며, 1689년(숙종 15)에는 김 4명, 한 3명, 백·全·鄭 각 2명, 丘·권·서·은·蔣·趙 각 1명이다. 이 성씨는 향촌에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발휘한 세력이었다. 특히 청주한·달성서·아산장·초계정씨는 고산서원과 향교의 임원을 역임하는 등 조선후기 경산현의 향권을 주도한 성관이다.⁶¹⁾ 1786년 부조한 9개소 문중이 바로 이들이다.

아울러 지방관의 협조도 뒤따랐을 개연성이 높았다. 材木 별채와 役軍 동원은 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며, 당시 서원 설립에 지방관의 인·물적 지원은 상식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강당이 준공되자 상량문을 경산현령 申光祐에게 의뢰한 것이다.

한편 1812년(순조 12) 8월 4일 한강학과의 首院 성주 회연서원을 필두로 대구 연경·伊江書院과 칠곡 四陽書院 그리고 14개 列邑 사림의 연명통문이 옥천사에 답지한다.⁶²⁾ 통문의 요지는,

어진 이를 높이는 정성은 몇몇한 본성을 지닌 자라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지만 다만 그 높이는 데에도 방법이 있고 받드는 데에도 예가 있는데, 옥천사의 경우 동고 선생을 모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陞號를 미루고 있으니 이는 崇奉의 도리가 아닙니다...⁶³⁾

59) 『玉川祠成造時扶助記』(달성서씨 동고문중 소장).

60) 慶山官儒案(1680)·慶山官儒案(168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경북향교자료집성(Ⅰ)』, 영남대학교출판부, 1992.

61) ○正神門舊蹟(1684): 도감 生員 韓弘翊, 유사 韓弘毅·鄭世間, 齋任 韓弘望·權尙經.

○正神門重修記事(1686): 監役 鄭克淳·蔣鎮極·李文龍·韓浩甲·徐鼎基, 도유사 韓文鶴, 재임 徐炳述·韓常俊.

62) 연명한 지역은 대구, 칠곡, 하양, 단성, 산청, 안동, 예천, 거창, 합천, 인동, 성주, 선산, 용궁, 永川이다. 『통문』(달성서씨 동고문중 소장).

발신처가 사우 승격을 발의할 29년 전과는 그 범위가 달랐다. 그럼에도 어찌 된 일인지 서원의 승격이 성사되지 않다가 1854년(철종 5)에 비로소 추진된다. 陞院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19세기 중엽에도 여전히 서원이 필요한 향촌 사회의 분위기가 배경이 되었다. 실제 조선후기 “社에 제례함은 一鄉이, 서원에 제향함은 一道가, 一國에서 받드는 것은 반드시 사액이 있어 편액을 빛내는 것이다⁶⁴⁾”라는 말 그대로 서원과 사우는 엄연히 간격이 존재했다. 더구나 陞院될 경우 免役이라는 경제적 특권도 뒤따랐다.⁶⁵⁾

본래 승원을 하려면 관의 허락이 원칙이었다.⁶⁶⁾ 하지만 이 시기 陞院 분위기는 지방관의 묵인하에 향론을 모아 진행하면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향론을 모은 실상은 『玉川祠陞號時各門中添助記』에 반영되어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4〉 승호 시 부조 현황

부조처	校院	문중	개인	기타	합계
부조금	3개소 - 24냥	46개소 - 118냥	6인 - 10냥	1개소 - 10냥	162냥

승호 시 부조금은 총 162냥으로 이전에 비해 40냥이 더 취합되었다. 문중의 부조는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개인으로서 부조한 자는 상당히 줄어든 부분이 두드러진다. 앞서 언급한 지역의 유력 성관 외 여러 문중이 참여한 결과이다.

그런데 이때 부조한 문중이 46개소로 확대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사

63) 『통문』(달성서씨 동고문중 소장).

64) 金鬱祥, 『鉾山先生遺集』, 『부록-梧山請額事呈禮曹文』, 윤희면, 『앞의 책』, 2004, p.94 재인용.

65) 윤희면, 『위의 책』, 2004, p.131.

66) 상주 근암서원에서는 홍여하와 김홍민을 추향할 때 관에 승낙을 요청하는 문서를 올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金楷, 『負暄堂先生文集』권3, 『近岳書院追享是呈牧伯文』.

족 수의 증가, 동족 촌락의 발달, 문중 단위의 향촌활동 등의 영향이 미쳤다고 할 수 있다. 校院 1개소가 늘어난 것은 1815년(순조 15) 효자 呂大翬⁶⁷⁾을 제향한 松湖祠가 설립되었기 때문이며, 기타 1개소는 作廳의 이방과 부이방이 부조한 내역이다.

서원 경제의 한축인 院屬도 이와 궤를 같이하여 확충되었다. 원속은 노비 외 避役을 목적으로 서원에 투숙한 자들로 良丁·원생·下典·守直軍 등으로 불렸다. 원속들은 투숙한 대가로 서원의 수직·잡역 등을 부담하거나 身貢을 납부했다.⁶⁸⁾ 옥천서원의 원속 규모는 승원한 해 12월에 작성된 『원속안』 1점을 통해 드러난다. 『원속안』은 「院生案」, 「良丁案」, 「下典案」 3案으로 편성되어 있고, 각 원속의 이름과 변동 사항을 기재하고 있다. 장마다 官印을 공인받아 원속의 면역 혜택을 받았다.

〈표.5〉 옥천서원 원속안

구분	院生案	良丁案	下典案	합계
숫자	14명	3명	5명	22명

서원 피역이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조정에서는 1707년(숙종 33) 서원의 모입 원생, 곧 원속 숫자를 문묘종사서원 30명, 사액서원 20명, 미사액서원 15명으로 규제했다.⁶⁹⁾ 미 사액서원인 옥천서원은 규정보다 7명 많은 22명이 장부에 원속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생에 出案 1명, 良丁에는 사망·도망·出案 각 1명 총 4명이 결

67) 여대익(1681~1742) : 본관 星山. 字 子高, 호 綾泉. 영천 정만양·규양 형제에게 수학했다. 모친을 극진히 봉양한 사실이 알려져 조정에서는 그 효행을 포상했다. 1878년(고종 15) 공조참판에 추증이 되었고, 『綾泉文集』 2책이 전한다.

68) 이수환, 『앞의 책』, 2001, p.181.

69)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원등록』, 「숙종 37년 12월 26일」, 2015, pp.137~138; 이수환, 『앞의 책』, 2001, p.186 재인용.

원 상태이다. 실제 옥천서원이 보유한 원속은 18명이다. 규정보다 3명이 많은 이유는 원속에 대한 면역은 전적으로 소재지 지방관의 재량이 작동되기 때문에 가능했다.

1604년(선조 37) 동고정사에서 출발한 옥천서원은 1786년 祠宇로, 1854년 서원에 이르는 변천 과정을 겪었다. 그러다가 1868년(고종 5) 대원군 서원 철폐령으로 훼철되고, 다음해 서당으로 복원해 문중 자제의 교육 장소로 잠시 이용하였다.

1947년 현재의 중방동으로 이건하여 서사선과 부인 진산진씨의 위패를 모신 齋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매년 음력 3월 17일에는 진산진씨, 음력 7월 17일에는 서사선의 不遷位 제사를 거행한다. ‘달성서씨 동고공 종친회’의 거점으로 매년 5월 첫째 주일에 정기총회를 하고 있으며, 청년 모임인 ‘달성서씨 동고공 東雲會’가 각종 행사시에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설과 추석에는 옥천사에서 차례를 지내고, 중북에는 별도로 모여 복달음을 하고 있다.

IV. 맺음말

조선후기 향촌사회에서 문중서원의 인식과 필요성을 경산현 옥천서원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살폈다.

혼인으로 경산현에 입향한 서사선은 왕성한 강학 활동, 동문들과의 교류, 문인양성, 공적 문자 찬술 등 지역 문풍 진작에 크게 공헌하였다. 이러한 서사선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안착하고, 나아가 향권을 주도하는 유력 가문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다.

달성서씨는 경산현에서 처음으로 문중서원을 설립했다. 성공은 두 가지 요인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내부적으로 鄉賢으로 추앙받는 입향조 서사

선이라는 존재와 사우로 전환이 가능한 건물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건물은 서사선이 세운 동고정사로 경제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외부적으로는 숙종 후반 이래 서원에 대한 통제책이 다소 완화되는 정조 연간 흐름에 편승해 이룩한 성과물이었다. 사우로 전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792년 陞院을 암시하는 강당이 신축되고, 1812년 한강학과 계열에서 승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승원 사업은 1854년에 추진이 되고 성사가 되기에 이른다. 19세기 중엽에도 여전히 서원이 필요한 향촌 사회의 분위기를 간취할 수 있다. 또한 院屬도 이와 궤를 같이하여 확충되는 모습에서 승원이 동반되는 경제적 혜택도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1604년 동고정사에서 출발한 옥천서원은 1786년 옥천사로, 1854년 옥천서원에 이르는 변천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서원 연구가 축적되면 조선후기 광범위하게 존치했던 문중서원의 성격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투고일: 2022.09.27. 심사완료일: 2022.10.05. 게재확정일: 2022.10.11.
--

〈참고문헌〉

『東臯精舍田畓·奴婢秩(1758)』 『玉川祠奉安時日記(1786)』 『玉川祠成造扶助記(1786)』
『院屬案(1854)』 『玉川祠陞號時各門中添助記(1854)』 『通文(1854)』 『실록』 『國朝文科
榜目』 『龍蛇世降錄』 『倡義錄』

金楷, 『負暄堂先生文集』

서사선(박대현 역), 『(국역) 동고집』, 옥천서당, 2000.

이휘재, 『雲山文集』

정구, 『寒岡年譜』

한경조(김연되 역), 『(국역) 柳溪集』

구본옥, 『大邱儒賢通講錄』, 도서출판 동방, 2014.

김충희, 『경북의 종가문화 68 - 경산 동고 서사선 종가』, 경북대학교 출판부, 202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서원등록』, 2015.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경북향교자료집성(I)』, 영남대학교출판부, 1992.

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4.

이수환, 『조선후기 서원연구』, 일조각, 2001.

이운우(이세동 역), 『(국역) 봉산육행록 한강선생 동래온천에 가다』, 성주문화원, 2016.

이해준, 『조선후기 문중서원 연구』, 경인문화사, 2008.

홍한주(김윤조 외 역), 『19세기 전문지식의 축적과 지식의 탄생 : 智水拈筆』, 소명출판,
2013.

강민구, 「낙재의 구국 항쟁과 강학 활동」 『동방한문학회』, 34집, 2008.

김학수, 「조선후기 綱岡羽瀾의 등장과 전개 -門人錄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집』제40집,
2010.

范慧嫻, 「白鹿洞書院의 성립과정과 조선의 서원 -주희의 서원관을 중심으로」 『한국학
대학원 석사논문』, 2015.

이수환, 「조선시대의 경산」 『경산의 역사』, 경산문화원, 2015.

_____, 「寧海 仁山書院의 設立과 毀撤」 『대구사학』제63집, 2001.

이해준, 「한국 서원과 향촌사회」 『한국학논총』제29집, 2007.

정병호, 「東臯 徐思選의 挽詞에 대하여」 『국학연구논총』제20집, 2017.

정우락, 「東臯 徐思選 詩文學의 공간 상상력과 의미 구조」 『국학연구논총』제20집, 2017.

채광수, 「19세기 경상도 하양현 育英齋 설립과 운영 양상」 『영남학』제76호, 2021.

- 한중수, 「18~19세기 영광정씨(靈光丁氏) 문중활동 연구 : 무성서원 『심원록(尋院錄)』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제25권 1호, 2022.
- 홍원식, 「東阜 徐思選의 삶과 사상」 『국학연구논총』 제20집, 2017.

<Abstract>

The Establishment and Change of Okcheon Seowon Gyeongsan-hyeon, Late Joseon Dynasty

Chae, Gwang-su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rural society's recognition on family Seowon and the necessity of it in late Joseon with the case of Okcheon Seowon in the Gyeongsan Prefecture. Largely, this research explores the establishment and changes of Okcheon Seowon based on the entrance of Seo Sa-seon, the Juhyangja of Okcheon Seowon, in Gyeongsan, his activities in the rural society, and also old documents.

Seo Sa-seon, who entered the Gyeongsan Prefecture, contributed greatly to promoting the literary atmosphere in the area by doing Ganghak activities, associating with people, cultivating literary persons, or writing official documents, and it served as an opportunity for his family to grow into an influential family grasping the local authority.

Dalseong Seo family established a family seowon for the first time in the Gyeongsan Prefecture. The factors of its success are the existence of Iphyangjo Seo Sa-seon revered as Hyanghyeon (the sage of the country) and the possession of the building that could be converted into a shrine. Also, it was the result attained along with the flow of King Jeongjo's years when control measures on seowon had been somewhat eased since the end of King Sukjong's reign. In 1792, shortly after the conversion to a shrine, an auditorium was newly built to imply Seungwon, and in 1812, Hangang School applied for Seungwon. However, Seungwon was genuinely realized in 1854. Even in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we can still detect the atmosphere of the rural society needing seowon. In addition, Wonsok were expanded along with that, and we can see the financial benefits accompanied by Seungwon from that.

To sum up, Okcheon Seowon which started as Donggojeongs Temple in 1604 was transformed to Okcheonsa Temple in 1786 and then Okcheon Seowon in 1854. This is a case study that helps you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family seowon that existed widely in late Joseon.

주제어(Key Words)

- Okcheon(옥천)
- Seowon (서원)
- Seo Sa-seon(서사선)
- Dalseong Seo Family(달성서씨)
- Gyeongsan, the family(경산 문중)